

유럽의회 선거... '反EU' 극우당 돌풍 불까

22일부터 나흘간 28개국서 3억8200만명 투표 경제위기 통합 회의론 득세...EU집행위원장도 선출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재정·금융 위기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 이후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연합(EU) 통합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이 발효된 2009년 12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거로 구성되는 8대 유럽의회는 권한과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향후 5년간 EU의 정책 방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는 EU 28개국에서 약 3억 820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해 751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유럽의회 선거는 각국 선거법에 따라 개별 국가 단위로 시행된다. 이번 선거는 오는 22일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며 23일 아일랜드, 체코(24일까지), 24일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폴타에서 실시된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나머지 21개 회원국에서 일제히 선거가 실시되고 일찍 투표가 끝난 회원국의 개표 결과도 이날 공개된다.

유럽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투표 종료 이전에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일찍 투표를 마친 나라의 결과가 다른 나라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역대 유럽의회 선거는 낮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초대 선거인 1979년에 61.99%를 기록한 이래 하락세를 지속했다.

유럽의회 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두 번째 선거인 1984년에는 58.98%로 떨어졌고

1989년에는 58.41%, 1994년에는 56.67%를 기록했으며 1999년에는 49.51%를 기록, 50% 선도 무너졌다. 이후 2004년 선거에서 45%를 기록한 데 이어 2009년 선거에서는 사상 최저인 43%를 나타냈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선거 결과와 EU 행정권력의 수장인 EU 집행위원장 선출을 연계하는 직선제 효과를 가미함으로써 역대 어느 선거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 각국 정부도 유럽의회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투표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극우 정당들이 반(反)EU, 반유로화 정서 확산에 힘입어 세력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극우파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는 것도 투표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 선거 이후에는 EU 집행위원장, 정상회의의 상임의장, 유럽의회 의장, 그리고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EU 최고위직이 모두 새로 선출된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오는 10월 교체된다.

또한 EU 집행위원 상당수와 유럽의회 의원의 주요 교섭단체 대표 및 상임위원장 등도 대폭 물갈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 선거 이후 EU 지도부 선출을 위한 공식, 비공식 움직임이 숨가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직후인 오는 27일 헤르만 반롬포이 EU 정상회의의 상임의장은 EU 정상들과 비공식 회동을 하고 집행위원장 선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의회 선거 개요 및 주요 후보



EU 집행위원장 주요 후보

- 장-클로드 융커(59) 유럽국민당 그룹(EPP) 독일 유럽의회 의원
- 마르틴 슈츠(58) 사회당 그룹(PES) 독일 유럽의회 의장
- 기 페어호프슈타트(61) 자유민주당 그룹(ALDE) 벨기에 전방기대 총리

EU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는 물밑 접촉을 계속하면서 7월 중순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의 후임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집행위원장 지명자는 유럽의회에서 과반수(376명)의 동의를 얻어 집행위원장으로 확정된다. 새 집행위원장은 11월1일 취임한다.

UAE에서 한국형 원전 첫 선...수출확대 모색

1400MW급 1기 설치 등 47조 규모 건설공사 수주 핀란드·베트남도 추진 중

2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1400메가와트(MW)급 원자로 1기 설치식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수출 확대에 처음 선보인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전력 컨소시엄은 2009년 12월 UAE로부터 총 40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원전 4기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NF쏘나타 200만대 또는 30만대 유조선

360척의 수출액과 맞먹는 역대 최대의 해외 수주로 평가받았다.

또한 한국은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떠올랐다. 한국이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고 다음해 원자력법을 만들어 원자력 개발에 뛰어들지 50여 년만이다.

UEA에 수출한 원전은 신고리 3·4호기 처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가압경수로 'APR(Advanced Power Reactor) 1400'이다. 당시 정부는 세계 원전시장을 이끌 차세대 원자로라고 이름 붙였다. 1호기는 2017년 준공하고 나머지 3기는 202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약 1600명의 한국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우리 측은 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 매달 2000억~3000억원을 받고 있다. UAE 원전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10년간 11만명으로 추산된다. 한국 입장에서 건설 인력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 인력의 수출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는 것은 한국형 원전을 홍보해 수출 길을 넓히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중동지역을 비롯한 해외 원전시장 진출 확대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대표적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100% 의존에서 벗어나 203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년 내에 원전 2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총 18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한전 등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 경쟁입찰에 대비하고 있다. 핀란드와 베트남의 원전 수주도 추진 중이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美 한인들 '세월호 참사' 비판 시위 18일(현지시간) 오후 뉴욕타임스 앞에 모인 한인들이 검은색 옷에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비판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日 연립여당, 집단자위권 조율

PKO 참여 자위대 무기 사용 기준 완화 우선 논의

일본 연립여당은 20일부터 아래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공식화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집권 자민당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의 협의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 완화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케이(産経)신문은 일본 정부가 PKO에 참여 중인 자위대가 타국 부대나 민간인 등이 무장집단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현장으로 달려가 경호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PKO 참가 5원칙을 수정할 것이라고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임수 수행을 위한 무기 사용'을 인정하도록 5원칙에 관한 기준의 수정을 추진한다.

현재의 5원칙은 정전합의 성립, PKO 실시 및 일본의 참가에 대한 분쟁 당사국의 동의, 중립 준수, 무기 사용은 생명 등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 기본 방침이 맞지 않으면 철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공명당의 입장을 고려해 5원칙의 문구를 대폭 바꾸는 대신 무기 사용 요건에 포함된 '필요 최소한'의 해석을 변경, PKO 협력법에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또 PKO 협력법에 규정된 자위대의 임무에 현장으로 달려가서 경호하는 것을 추가할 예정이다.

자민당이 PKO의 무기 사용을 먼저 논의하려는 것은 공명당이 일정한 견제 장치를 전제로 이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무력 공격에 이르기 전 단계의 도발인 화석시대(그레이존) 사태에 대한 대응도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5원칙은 정전합의 성립, PKO 실시 및 일본의 참가에 대한 분쟁 당사국의 동의, 중립 준수, 무기 사용은 생명

훈련시킨 개로 전립선암 98% 진단

이탈리아 연구병원 발표

훈련시킨 개로 전립선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탈리아 밀라노 후마니타스 연구병원의 지안루이 타베라나 박사는 2마리의 개를 소변냄새로 전립선암 환자를 가려내도록 훈련시켜 이제는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을 98%까지 정확하게 찾아 낼 수 있게 됐다고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헬스데이 뉴스 등이 19일 보도했다.

타베라나 박사는 전립선암 환자 320명과 전립선암이 없는 사람 357명에게서 채취한 소변을 이용, 2마리의 개에게 소변냄새로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을 가

려내는 훈련을 꾸준히 시켰다.

전립선암 환자들은 초기 환자에서 암 세포가 전이된 말기 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대조군에는 다른 종류의 암이 아닌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 포함됐다.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에는 특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들어있다. 이 물질은 쉽게 공기 속으로 증발하면서 냄새를 풍기는데 예민한 후각을 지닌 개는 이를 구분해 낼 수 있다고 타베라나 박사는 설명했다.

훈련은 개들이 전립선암 환자의 소변이 담긴 용기를 찾아내 그 앞에 앉으면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복중알카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펌프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